



# 친일적폐세력청산을 요구하는 남녘의 민심

남조선에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각계층 주민들속에서는 일본에 아부굴종하는 친일적폐세력의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한국대학생 진보연합》(대진련) 소속 대학생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미래통합당》 소속 라경원의 옆에서 《사사건건 아베편》, 《4월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이러한 광경은 《미래통합당》이 내세운 다른 후보들의 선거유세장들에서도 펼쳐지고있다고 한다. 서울지역에 출마한 이 당의 황교안, 라경원, 오세훈, 김태우가 걸거리에서 비난공세를 시달렸다. 청년대학생들은 《친일종주주의전사가 되겠다》고 말하였는데 어떤 의도냐?, 《친일매국노는 정계

무대를 떠나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남조선의 청년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주민들이 선거를 앞두고 친일매국세력의 청산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일본 본국의 군국주의적침략야욕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와 함께 한 심나라족속들에게 아부굴종하며 침략의 길 안내자로 나서고있는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친일매국세력을 단호히 정벌하려는 굳센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다 아는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제일 많은 의석을 따내겠다며 기만적인 선거운

동놀음을 벌리고있는 《미래통합당》으로 말하면 친일굴종사상이 뼈속까지 들어찬 친일파, 매국노들의 집단이다.

이 당이 숭상하는 조상인 박정희가 일제시기부터 친일매국행위를 한 특등친일주구이고 집권하자마자 일본과의 범죄적인 회담을 벌여놓고 굴욕적이며 매국배적적인 《협정》이한것을 체결하여 두고두고 민심의 손가락질을 받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박정희의 뒤를 이어 쿠데타로 권력을 가로챈 전두환 집권세력 역시 별의별 해피한 친일매국행위를 다 부리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민정당》, 《민

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끊임없이 간판을 바꾸어달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반역당의 친일매국기질에서는 달라진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난해 일본이 남조선대법원의 정당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을 놓고 적반하장으로 높아이며 경제보복의 칼날을 들이댔을 때에도 온 남조선인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데 유독 《자한당》(《미래통합당》의 전신)패거리들만은 가해자인 일본을 비호두둔하는 역적질을 하였다.

인민들의 즐거운 각종 형식의 반일투쟁에 대해 《갑

상적민주주의》, 《철없는 아이들의 행동》, 《무지몽매한것들의 짓거리》로 모독해나섰는가 하면 지어 《엄마부대》와 같은 극우광대무리들을 내세워 《반일을 웨치는 정부와 단체들은 아베와 일본에 사과하라.》는 친일망발까지 거리낌없이 내뱉게 하였다.

군사적재침을 노리는 일본에 침략의 길을 대주는것과도 같은 어리석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보존해야 한다고 녀두리질을 한것도 바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한당》패거리들이었다.

황교안을 비롯한 반역당의 우두머리들은 《현 정부가 반일선동을 하고있다.》, 《신채주정책》이라고 절고 늘어지다 못해 《지금은 친

일을 해야 할 때》라는 일토당토않은 망언까지 늘어놓아 온 남녘겨레의 분노를 샀다. 원래 황교안으로 말하면 박근혜 《정권》시기 《일본자위대입국을 허용할수 있다.》는 망언을 했고 일제강점기정체절을 위한 박근혜의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절을 위한 박근혜의 친일매국정책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날던 공범자, 친일분자이다.

지금 인민들로부터 락선대상의 하나로 락인되어 규탄을 받는 《미래통합당》의 이전 원내대표였던 라경원도 각계층의 일본상품불매운동을 《감상적민주주의》로 모독하였는가 하면 《우리일본》이라는 망발까지

늘어놓아 그의 몸에 과연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고있는가 하는 각계의 의문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다. 그가 수년전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과 관련한 모임에 빠졌이 참가하고 박근혜의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협상을 《외교적으로 잘한 협상》이라고 극구 찬양하였다가 규탄세례를 받은것도 잘 알려져있다. 지난해에 해방후 남조선에서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조직되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국민분렬의 화근》이라고 공공연히 헐뜯어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기도 한 친일악녀이다. 오죽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라경원에게 《라베》(라경원+아베), 《토착왜구》,

《친일자위대원》이라는 치욕적인 별명까지 붙여주었겠는가.

다리부러진 노루 한쌍이 모인다고 남조선인민들이 저주하고 규탄하는 친일매국노들이 모인 집단이고 그 권력을 보아도 친일매국정당인 《미래통합당》이 남조선인민들의 규탄세례를 받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래통합당》의 얼굴에 찍혀져있는 《친일매국정당》이라는 치욕의 락인은 그 어떤 분칠을 해도 지울수 없는 영원한 락인이다.

이번 친일매국노들의 집단이 선거에서 이겨보겠다고 선거판을 어지럽히고있으니 남조선인민들이 가만있을수 없는것이다.

최근 지은테로 가가마리이라고 친일매국행위만을 일삼아온 《미래통합당》이 력사의 심판대우에 오르는것은 피할수 없는 속명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남조선에는 악성비루스감염증사태를 저들의 추악한 목적달성에 써먹으려는 세력이 있다.

《COVID-19》사태를 권력쟁탈야욕실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열을 올리고있는 《미래통합당》세력이 그러하다.

지난 3월말 《미래통합당》대표 황교안은 관훈토론회라는데서 《COVID-19》에 대한 현 《정부》의 《초기방역실패》와 그 무능 《황망한 경제실패》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고아했다. 마치 저들이 전염병확산방지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주장거렸지만 속통이 시꺼먼 자의 입에서 쏟아지는 소리는 역시 역스러울수밖에 없다.

지금 《미래통합당》패거리들이 저마다 언론들에 나서서 떠들어대고있지만 방역과 관련하여 들을 소리는 하나도 없고 전부 정치적적수를 공격하는 꾀변뿐이다.

악성비루스감염증을 막는것이 그 무엇보다 더 사활적인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 있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방역대책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와 여당공격에만 집

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은 어떻게 하나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퍼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는데 그 비렬한 목적이 있음은 누구나 알수 있는 문제이다.

입으로는 《민생》을 넘볼처럼 외위대지만 정작 인민들의 생명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지금 명색이 정당이며 정치를 한다는 《미래통합당》이 하는것은 정쟁밖에 없다.

하긴 여당행세를 할 때에도 남조선인민들을 《개, 돼지》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아닌가. 수백명의 아이들이 배와 함께 바다속에 가라앉아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에도 집권자는 침대우에서 뒹굴며 얼굴피부가구기에 여념이 없었고 그 수하종개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의 눈앞에서 먹자판까지 벌려놓고 탄동을 부린 바 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

살겠다. 갈아보자!》이게 민심》이라고 떠벌어대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파괴퇴행적인 발언》, 《상투적 반정부선동》, 《선거용 거짓선동》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다. 그러면서 오늘 남조선에서 갈아버려야 할 대상은 다름아닌 정쟁에만 미쳐들어가는 《미래통합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천지》의 교적자들과 신도들을 다 찾아내어 악성전염병이 더 퍼지지 못하게 막아야 하겠는데 몸을 숨기고 방역사업에 불응하고 지어 도전해나서는 범죄집단을 각싸고도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것이 《COVID-19》가 사회에 더 만연되게 하려는 고의적인 술책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는 저주와 분노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최근에도 《미래통합당》대표라는 황교안은 《교회내에 감염발생이 거의 없다.》, 《교회에 집단감염 책임을 물어 매도해선 안된다.》는 악담까지 내뱉은것으로 하여 각계로부터 《국민의 안전문제조차 정쟁에 활용한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남조선에서 사회적불안만을 고취하고있는 악성비루스정당은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전영민

를 전파시킨 《신천지》에 민심의 저주의 눈초리가 쏠릴 때 유독 《미래통합당》만이 《신천지》를 극구 비호두둔해나선것은 뒤가 쟁겨서라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신천지》의 교적자들과 신도들을 다 찾아내어 악성전염병이 더 퍼지지 못하게 막아야 하겠는데 몸을 숨기고 방역사업에 불응하고 지어 도전해나서는 범죄집단을 각싸고도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것이 《COVID-19》가 사회에 더 만연되게 하려는 고의적인 술책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는 저주와 분노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최근에도 《미래통합당》대표라는 황교안은 《교회내에 감염발생이 거의 없다.》, 《교회에 집단감염 책임을 물어 매도해선 안된다.》는 악담까지 내뱉은것으로 하여 각계로부터 《국민의 안전문제조차 정쟁에 활용한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남조선에서 사회적불안만을 고취하고있는 악성비루스정당은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전영민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창원시 민단체가 3월 26일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 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부당한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요하는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원자들은 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내라고 강박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는 남조선주둔 미군을 나가라는것이 창원시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해 폭로하였다.

미국의 반인권, 반노동적인 도발행위를 규탄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동북아시아의 폐련을 위해 존재하는 남조선주둔 미군은 필요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6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국민혈세를 내라고 강박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는 남조선주둔 미군을 나가라는것이 창원시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창원시 민단체가 3월 26일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 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부당한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요하는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원자들은 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내라고 강박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는 남조선주둔 미군을 나가라는것이 창원시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해 폭로하였다.

미국의 반인권, 반노동적인 도발행위를 규탄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동북아시아의 폐련을 위해 존재하는 남조선주둔 미군은 필요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6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국민혈세를 내라고 강박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는 남조선주둔 미군을 나가라는것이 창원시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창원시 민단체가 3월 26일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 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부당한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요하는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원자들은 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내라고 강박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는 남조선주둔 미군을 나가라는것이 창원시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해 폭로하였다.

미국의 반인권, 반노동적인 도발행위를 규탄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동북아시아의 폐련을 위해 존재하는 남조선주둔 미군은 필요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6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국민혈세를 내라고 강박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는 남조선주둔 미군을 나가라는것이 창원시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창원시 민단체가 3월 26일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 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부당한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요하는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원자들은 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내라고 강박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는 남조선주둔 미군을 나가라는것이 창원시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해 폭로하였다.

미국의 반인권, 반노동적인 도발행위를 규탄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동북아시아의 폐련을 위해 존재하는 남조선주둔 미군은 필요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6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국민혈세를 내라고 강박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는 남조선주둔 미군을 나가라는것이 창원시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 인민들이 죽든살든 정쟁에만 몰두한다

에 없다.

하긴 여당행세를 할 때에도 남조선인민들을 《개, 돼지》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아닌가. 수백명의 아이들이 배와 함께 바다속에 가라앉아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에도 집권자는 침대우에서 뒹굴며 얼굴피부가구기에 여념이 없었고 그 수하종개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의 눈앞에서 먹자판까지 벌려놓고 탄동을 부린 바 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

리지 않는 《미래통합당》이고 이 역적당이 게워낸 《미래한국당》인것이다. 이번 《미래한국당》이 잔머리를 굴러 갈취해낸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피땀이 스민 세금으로 마련된것이다.

인민들의 혈세를 마구 뜯어내어 탕진하면서 권력을 차지해 보겠다는 《미래한국당》의 파렴치한 태도에 민심은 《합민권당》, 《국민혈세도적당》이라며 저주와 규탄의 화살을 날리고있다.

옛날 조선봉건왕조시기 백성들은 범보다 무서운것이 권력을 등대고 돈과 재물이 이끌이던 탐관오리들이라고 했다.

남조선인민들에게 고통만을 주는 이런 돈벌레들은 하루속히 박멸해야 할 버리지들이아 틀림 없다.

김영철

그들의 눈에는 《COVID-19》가 아니라 오직 부귀와 영달의 안식처인 권력밖에 보이는것이 없다.

지어 《미래통합당》패들은 권력에 환장한 나머지 위험한 전염병전파집단을 비호두둔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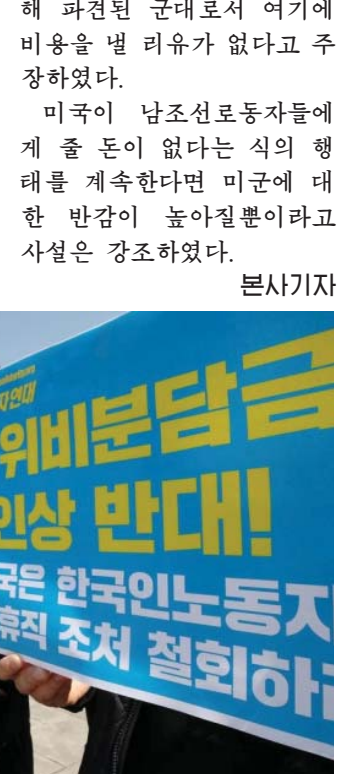
남조선에서 《COVID-19》의 기본감염집단이고 전파집단인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이 오래전부터 멀수 없이 얽혀온 한몸동이라는것은 이미 많은 사실자료들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COVID-19》

와 분노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최근에도 《미래통합당》대표라는 황교안은 《교회내에 감염발생이 거의 없다.》, 《교회에 집단감염 책임을 물어 매도해선 안된다.》는 악담까지 내뱉은것으로 하여 각계로부터 《국민의 안전문제조차 정쟁에 활용한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남조선에서 사회적불안만을 고취하고있는 악성비루스정당은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전영민



##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정미 7 조약》을 날조하여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정장인 《미래한국당》의 돈벌어내는 재간이 귀신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선거가 끝나면 사라질 이 가짜정당이 선거보조금을 타기 전에 《미래통합당》으로부터 3명의 《국회》의원을 《수혈》받아 원내교섭단체로 된것을 두고 이렇게 말할수 있다.

남조선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한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나누어주는데 이때 절반을 교섭단체에 지불한다고 한다.

이것을 아는 《미래한국당》이 선거보조금을 내주기 하루전에 원내교섭단체의 형태를 갖추어 원내 반기로 되어있던 돈의 두배가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아낸것이다.

돈이라면 그 어떤짓도 가

리지 않는 《미래통합당》이고 이 역적당이 게워낸 《미래한국당》인것이다. 이번 《미래한국당》이 잔머리를 굴러 갈취해낸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피땀이 스민 세금으로 마련된것이다.

인민들의 혈세를 마구 뜯어내어 탕진하면서 권력을 차지해 보겠다는 《미래한국당》의 파렴치한 태도에 민심은 《합민권당》, 《국민혈세도적당》이라며 저주와 규탄의 화살을 날리고있다.

옛날 조선봉건왕조시기 백성들은 범보다 무서운것이 권력을 등대고 돈과 재물이 이끌이던 탐관오리들이라고 했다.

남조선인민들에게 고통만을 주는 이런 돈벌레들은 하루속히 박멸해야 할 버리지들이아 틀림 없다.

김영철

세인을 경악케 하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본은 그후 통감통치로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체계를 확립하고 방대한 침략군을 주둔시켰는 한편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까지 빼앗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내정권은 국가의 내부문제에 속하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제 조치를 취하고 그와 관련한 문제들을 처리할 권리로서 주권을 빼앗긴 나라는 사실상 국가라고 인정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내정권강탈의 《합민권》을 조선병합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당면한 중대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던것이다.

초기에 일본은 내정권강탈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선봉건정부의 각 부들에 들이민 일본인 《교문》과 《참어관》 등

을 통하여 조선의 내정권을 간섭, 통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내정권통치 방식은 일본의 식민지통치에 반기를 든 고종의 반일적 기반으로 하여 저들의 침략로 하여 처음부터 장애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부러 일본은 조선의 내정권에 대한 장악통제를 강화하고 장차 병합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고종황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교활한 일본은 조선민족과 세계여론을 기만 목적밑에 고종의 퇴위를 친일주구들을 부추겨 실현할 음모를 꾸미었다. 그 하나는 친일주구단체를 리용하는것이 다른 하나는 친일내각을 더 개악하는것이였다.

그러하여 일본은 1907년 5월 박제순내각을 해체하고 친일매국내각인 리완용내각

을 조직하였으며 친일주구단체인 《일진회》우두머리인 송병준을 농상공부대신으로 앉히게 함으로써 새 친일내각이 《일진회》를 지지기반으로 하여 저들의 침략정책실현에 더 잘 복무할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어 일본은 1907년 6월 《내각관제》를 전격적으로 개악하여 황제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대신 내각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여 친일내각이 고종에게 대항할수 있는 체도를 마련하여놓았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당시 세상을 들쭉케 한 헤그딜사건이 일어났다.

러일전쟁의 도움을 받아 국권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던 고종은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리준을 비롯한 세명의 밀사를 파견하여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본

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하게 하였던것이다.

일본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것을 고종의 강제퇴위를 실현하고자 나아가서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그러하여 조선침략의 피수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에게 헤그딜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황제자리에서 내쫓는 다음 황제의 내정권을 《합민권》으로 탈취할수 있는 《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

상진의 지시를 받은 이토는 매국노들을 내세워 고종황제에게 퇴위를 강요하게 하였다.

고종황제에 대한 일본과 친일매국적들의 퇴위강요에 항의하여 서울에서는 대규모적인 반일시위가 벌어졌으며 그것은 일본침략자들과

의 폭력적대결로 번져갔다.

일본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야수적으로 진압하였으며 시내의 요소 요소에 폭압무력을 배치하고 어마어마한 경제진을 폈다.

서울시민들의 반일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한 이토는 이미 작성한 범죄적계획에 따라 1907년 7월 23일 박리완용을 자기 집에 불러다놓고 《정미7조약》 체결을 강박하였다.

이렇게 되어 그 다음날에 《정미7조약》이 일본에 의해 강압날조되게 되었던것이다.

모두 7개 조항으로 되어있는 《조약》에서 일본은 조선봉건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것, 《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

야 하며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료로 임명》하여야 한다는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리하여 조선봉건정부는 일본통감의 《지도》, 《승인》, 《동의》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다.

《정미7조약》의 강압날조로 조선봉건정부는 외교권과 함께 내정권 등 권력을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다.

일본은 이 불법무효한 《조약》을 내 놓고 조선에 대한 통감통치와 식민지화정책을 강화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노예적굴종을 강요하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이쳤다.

일본에 의한 《정미7조약》의 날조는 철두철미 비법적이며 날강도적인 책동으로서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정당화, 합리화될수 없고 오직 천추를 두고 저주와 규탄을 받아야 할 간악한 범죄행위이다.

본사기자 주광일